불교무형유산 집대성, 시급한 과제

8월 30일 조계종 정책세미나에서 한 목소리

"불교 유적을 비롯한 유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무형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불교계가 앞장서야 합니다. 종령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안을 만들어 다양한 조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조계종이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종령을 마련한 가운데 불교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가 8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 전승 정책세미나'에서 나경수 전남대 교수, 구미래 동국대 외래교수, 이채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를 비롯한 관련 학자들은 불교무형문화유산 보존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나경수 전남대 교수는 "불교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등록하는 사업은 10년 이내 완성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디지털아카이브, 웹서비스, 전승인력 교육프로그램 등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밀했다.

나 교수는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 및 등록에 대해 "단기, 중기,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연차별, 지역별 조사대상에 대한 단계별 진행시스템 마련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방안 수립 △사업진행및 전승,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산출및 확보 방안 강구 등을 제안했다. 또 △디지털아카이브, 디지털문화지도, 웹서비스 등에 대한 기반과 계획 준비 △전

인력 확보 및 교육방안 마련

전승 보존 관리 예산 확보

디지털화 기반 준비 요청도

사하촌 등 신앙양상 조사 제시

승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준비 △현대적 활용방안과 창의적 개발의지 필요성도 제시했다.

나 교수는 또 △불교미술, 음악, 무용 등에 대한 전통 기예 △불교와 관련된 전통지식 및 관습 △불교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대중 공동체에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의 보완을 요청했다.

나경수 전남대 교수

구미래 동국대 외래교수

이채원 학예연구사

이와 함께 구미래 동국대 외래교수는 "불교문화는 일찌감치 문화콘텐츠의 중심으로 등장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작 이루어졌어야 할 기초 조사와 연구가 공백으로 남아있다"며 "현재 실태조사와 다른 관점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에 대해 △대표 불교무형 전승사찰 선정 및 조명 △사하촌과 사찰간 신앙관계 및 문화관계 조사 △구술사 연구 방법을 통한 근현대 무형문화 전승 정리 △신앙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제안했다.

구 교수는 "해당종목에 대한 일괄조사와 사찰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가 완료되면 별도의 기구에서 전승주체를 선정해 이후 종목별 관리 및 등록 · 지정 문화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원 학예연구사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살펴보면 관광증대를 목적으로 한 문화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우선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유산이 공동체 구성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학예연구사는 "여러 문제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의 조사 이후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조사 시에는 동의서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문화재청 '공인복제품' 방침 두고 논란

국립중앙박물관 이의제기, 학계 일부서도 비판나와

문화재청이 최근 발표한 '국가 공인 복제품' 방침을 두고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은 최근 "예술가의 영혼이 스며든 걸작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며 "교육적 목적에서 일부 유물을 복제할 수 있겠지만, 전시에 복제품을 내놓는 것은

중앙박물관 "전시 효과 없을 것"

강우방 "공인 복제품은 조롱거리"

'진품'을 보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 대한 기만"이라고 문화재청의 방침을 비판했다.

한국정부가 문화재 복제를 '공인'하는 데에 대한 반대목소리도 제기됐다.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원장은 "해외 전시에 국가 공인의 복제 문화재를 내놓는 것은 조롱거리가 될 만한 일"이라며 "일찍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금동백제대향로'를 복제해 전시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관람객이 없었다. 다른 선진국처럼 가장 중요한 작품들을 엄선해 해외 전시를 금하는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측도 "대부분 국외 전시가 교환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복제품을 대여하면 상대 박물관도 진품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교환 전시에서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조각 등에 복제가 활발한 반면, 프랑스 루브르 · 오르셰 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세계 유수 박물관들은 '진품 전시' 원칙을 갖고 있다. 올해 초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바티칸박물관전에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복제품이 전시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외국 기관들이 실제로 전시용 복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조상순 유형문화재과 학예연구사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복제품 제작 기준과 품질에 대한 검증 방안 마련, 관련법규 정비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전쟁 때 유실된 문정왕후 어보 환수된다

美LA정부, 반환 의사 밝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반출된 문정왕후 어보가 60여 년 만에 모국으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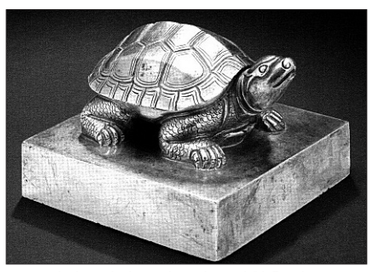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는 8월 28일 LA카운티 정부가 LA주립박물관(LACMA)에 소장된 문정왕후 어보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LA카운티 최고 책임자인 제브 야로슬라브스키 수퍼바이저는 서한을 통해 "문정왕후 어보가 도난품이 확실하고 한국정부가 반환 요청을 한다면 기꺼이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혜문 스님, 안민석 민주당 의원, 김정광 미주한국불교문화원장 등이 서명한 반환요청서와 함께 LA주립박물관이 요청한 어보의 종묘 보관 사실기록과 미군에 의한 도난여부, 한국정부의 반환요청 사실 등을 제출한 바 있다.

LA카운티 정부는 9월 18일 혜문 스님 등과 2차 면담을 갖고 후속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혜문 스님은 "9월 18일 2차 면담에서 반환여부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광 미주한국불교문화원장은 "환수를 위한 마지막 고개를 넘었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밝혔다.


LA주립박물관이 소장중인 문정왕후 어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2010년 문정왕후 어보 반환 문제를 놓고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 해왔다. 지난 8월 중순에는 어보환수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 백악관 청원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9월 3일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을 성 김 주한 미대사로부터 전달받기로 했다. 호조태환권 원판은 검찰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불법 반출로 확인돼 환수되는 첫 사례다.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은 1892년 고종이 화폐개혁을 실시하면서 구화폐의 신권환폐 교환을 위해 만든 청동원판으로 1951년 미국으로 반출됐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보조 지눌 스님 수행저술서 보물 지정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수행자의 길을 제시한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8월 26일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보조국사 지눌 스님(1158~1210)이 당나라 종밀 스님(780~841)의 〈법집별행록(法集別行錄)〉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린 〈절요(節要)〉와 자신의 견해인 〈사기(私記)〉를 삽입해 펴낸 저술서다. 조선 성종 17년(1486) 여름 광주 규봉암(圭峯庵)에서 펴낸 목판본이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불교 강원에서 필수교재의 하나로 채택돼왔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조선시대에는 20여 종이 넘는 판종이 유통 됐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수렴된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東大 우제선 교수팀, 한국학 선도연구 선정

동국대 우제선 교수팀이 국내 대학 최초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학 선도연구지원 사업에 선정돼 5년간 총 15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연구를 시작한다.

우 교수의 한국학 세계화 랩에는 외국인 교수를 포함한 동국대 교수 2명과 독일 라이프치히대, 미국 하버드대, 대만 정치대 등 6개국 9명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중이다. 먼저 우제선 교수팀은 한국학 중 한국사상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우제선 교수는 "통일신라시대는 한국사상의 세계화가 잘 이루어진 시대"라며 "특히 원효 스님의 경우 저술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읽혀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한국학 세계화 랩은 향후 워크숍을 열고 연구 방향과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 교수팀이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5년동안 참여 연구원 개별 당 국제 저명 학술지에 2.5편의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더불어 북미, 영미권에서 영어로 책을 내야한다.

우제선 교수는 "예전부터 세계학계에서는 아시아 학문하면 일본학을 떠올렸다. 한국학의 경우 인지도 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한국학 황금시대를 이끈 분들을 발굴해내고 이들의 사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선리연구원, '선문화연구' 제14집 발간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은 최근 '선문화연구' 제14집을 펴냈다. 이번 논문집에는 학술상 수상논문으로 △조준호 박사의 '선과 염불의 관계-염불선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황정일 보조사상연구원 기획실장의 '법구의 삼세실유설에 대한 비판과 그 의미-아비달마디빠의 수면품을 중심으로'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만암의 불교정화관' △월호 스님의 '능엄경에서 쉼의 의미와 휴식형 템플스테이' 등이 실렸다.

일반논문으로는 △이필원 동국대 연구교수의 '초기불교의 임종관' △정성준 동국대 교수의 '중국화엄과 밀교 교섭의 양상에 대한 고찰-다라니와 수용을 중심으로' 등이 수록됐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불교문화' 제14집 출간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최근 '동아시아불교문화' 제14집을 펴냈다. 14집에는 △김현구 호남불교연구소 전임연구원의 '실재론과 반실재론 논쟁-월칭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박창환 금강대 교수의 '구사론주 세친의 현상주의적 언어철학' △안환기 서울대 박사의 '식(識)의 분화에 의한 언어작용' 등이 실렸다.

이와 함께 △도업 스님의 '십이분교의 수사기법과 붓다의 교화방법' △원철 스님의 '유가사지론의 섭결택분에서의 전의사상' △도웅 스님의 '함허당 기화의 호불론과 유교인식' 등 논문이 게재됐다. **노덕현 기자**

'나'를 돌보고
'세상'을 치유하는
인문 실용 융합형
인재 육성!

동명대 불교문화학과는 인문적 가치의 실용적 구현을 통해 내면적 성숙을 갖춘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부터 산학협력까지"

동명대학교 이유진

맞춤형 교육과정, 풍부한 장학금 혜택! – 불교문화학과

- 2014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 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 문화콘텐츠 트랙, 불교학 심화 트랙, 복수학위 트랙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동명대학교 TONGMYONG UNIVERSITY
불교문화학과
608-711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 수시 1차 모집 접수기간 : 2013. 9. 9(월) ~ 9. 13(금) • 입학 상담 :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 051)629-2511 • 입학 홈페이지 http://dharma.tu.ac.kr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자세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